

2025
NOVEMBER

11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의료기사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발의

02 FOCUS

임상병리사 관련 법률의
변천사(2)

03 KAMT NEWS

제8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성료

04 KAMT NEWS

지역통합돌봄시대 공직
임상병리사의 역할 모색

05 INTERVIEW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김상훈 학회장 인터뷰

06 INSIGHT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제514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야 합의로 발의...“조속한 통과 촉구”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3. (생략)	제1조의2(정의) ----- ----- 1. -----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 --. 2.3. (현행과 같음)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② (생략) <신설>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 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운 의원 등 국회의원 34인은 10월 13일(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 중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는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정의와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과 진단검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적극 환영했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채혈, 검체관리, 현장검사 등 임상검사의 핵심 업무를 비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검사 오류 및 감염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임상병리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의사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검사 결과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공하는 유일한 법정 직역”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명확히 법률에 반영되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나 돌봄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내원 절차를 줄여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특히 임상병리사가 지역 보건소, 요양시설, 재택 의료 환경 등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만성질환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광우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규정과 교육·면허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반 진단기술, 분자진단, POCT 현장검사 등 첨단 검사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수십 년 전 제정 당시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의료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검사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 범위도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협회는 법안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이상과 현실 사이”

-임상병리사 관련법률의 변천사(2)-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월 25일(토)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 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등을 ‘3대 약법’이라 규정하며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첫 번째, 성분명 처방은 처방전에 약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 타이레놀처럼 특정 제약사 상품명 대신 약의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식이다. 현재 상품명 처방 방식에선 해당 상품이 품절인 경우 환자가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의사계는 2022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 등을 근거로 한 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의료장비인데다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이 쟁점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혈액 등 검체를 채취하면, 자체 검사 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위탁기관)은 이를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검체검사 위탁 시 건강보험공단은 수탁기관에 검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검사관리료’ 명목으로 추가로 위탁기관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의협이 제기하고 전면투쟁을 예고한 3대 약법은 임상병리사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첫 번째 성분명 처방은 약사와 의사와의 직역에 관한 부분이라 논점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관점인 한 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임상병리사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원고인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체외진단키트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온 것에 대해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의료계에서는 관련 한의사들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료계 업무영역과 관련된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당장 1, 2개 판례만으로 한의사의 체외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하거나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판례에 따라 방사선 안전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이 포함된다는 법률 해석이 이뤄지면서 한의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의사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지도와 고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가 현재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번째 관점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이다. 검체 위·수탁 문제는 임상병리사가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주체이면서도 현실은 논외로 치는 이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2004년 협회는 정도관리협회, 진단검사의학회와 함께 수탁기관의 고질적인 덤핑문제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던 적이 있었다. 협회는 수탁기관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많게는 70%에 이르는 수탁기관의 검사료 덤핑에 있다고 봤다.

특히 협회는 수탁기관의 덤핑이 기존 중소병원들이나 새로 개설되는 의원들에서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아예 검사실을 개설하지 않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았다. 임상병리사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따라 덤핑 관행 사례와 근무조건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임상병리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수탁검사기관들이 일정한 원칙 없이 운영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찾았다.

하지만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2004년이나 2025년이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2025년 현재도 위·수탁 검체검사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수탁기관이 거래 유지를 위해 의원에 과도한 할인이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위탁기관인 개원의들이 더 큰 몫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0% 가산을 폐지하고,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각각 정해진 비율(9대1 등)로 분리 정산받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당사자인 임상병리사들의 현장의 소리는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검사기관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한병리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정부의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관리료 폐지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개원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이 아무리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해도 실제 ‘투쟁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피로감이 크고, 전공의·의대생이 다시 집단행동에 동참할 이유도 적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본다.

협회 62년사에서 우리는 항상 법적 제도적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머리띠 질끈 묶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소리 높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내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매번 답답함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28대 집행부는 직시하고 2024년 3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수동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로 임하고 있기에 회원들이 28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크다고 본다.



제8회 보건의료기사의날 기념식 성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0월 29일(수)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허봉현) 각 단체장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에서는 이광우 협회장, 최병호 사업부회장, 지우현 총무이사, 신형식 재무이사, 주태영 정보통신이사, 고인철 정무이사,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사의 날'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

으며, 의료기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기념하는 행사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포상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으로 나뉘어, 직역별로 각 1명에게 수여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최병호(아주대학교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고인철(분당차병원)

2025년도 전문임상병리사 인정시험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전문임상병리사 인정시험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응시 분야에 따라 ▲미생물 ▲품질관리 ▲화학 ▲수혈 ▲육안 ▲조직 ▲세포 ▲유전 등 8개 분야로 구분돼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에서 진행됐다. 10월 19일(일)에는 미생물·품질관리·화학·수혈 분야가, 10월 26일(일)에는 육안·조직·세포·유전 분야가 각각 시행됐다.

이론 시험은 분야별로 ▲미생물(100문항) ▲품질관리(100문항) ▲화학(80문항) ▲수혈(50문항) ▲유전(50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세포·조직·육안 분야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했다. 세포 분야는 이론(75문항), 환등기(30문항), 현미경 I (30문항), 현미경 II (15문항)으로 세분화됐고, 조직과 육안은 각각 이론 50문항과 실기 25문항으로 진행됐다.

합격자 발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

표 후에는 시험지 및 답안카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열람지침 파일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kamt@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은 이메일 또는 방문(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1:30~12:30 제외)으로 가능하다.



제512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0월 16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6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8명, 총원 45명 중 34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5년 제513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분과 행정지도감사 교육 개최 안내, 2025년 제187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안내, 사무국 직원 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refresh 휴가 지급의 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재산세(토지분) 납부, 대외협력 자문위원 정책자문료(2025년 9월~12월분) 지급, 서울시회 한마음단합대회(체육대회) 찬조금 지급,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종합학술대회 학술 보고, 학술 표준화 사업(안), 학술센터 고도화 사업 추가 As-IS제출의 건, 2025년 2차 연수강좌 개최 안, 국제편집위원 및 국내 편집간사, 편집위원 임명의 건, KJCLS 저널(반응형) 홈페이지 및 대한임상검사과학회 국제위원 접속 페이지 구축,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57-3호(2025년 9월호) 논문교정심사비 보고 ▲교육부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4차 운영위원회, 임상병리사 현장(임상)실습 법제화 관련 교수협의회 및 전국임상병리학과장 회의 ▲국제부 JAMT 단기트레이닝 개별 참가자 관련 보

고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9월호 발행의 건, 매경헬스 창립 18주년 창간 협찬의 건, 데일리메디 창간 22주년 광고 협찬의 건, 2025 보사편람 광고 협찬의 건, SNS 홍보의 건, 보도자료 배포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의 건, 전산장비 구입 보고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안내 문자 발송 보고, 9월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보고의 건,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보고의 건 ▲법제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법제워크숍 개최의 건 ▲정무부 2025 김근태 재단 희망바자회 찬조금 지급의 건 ▲중소병의원부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중소병의원부 활동, 공단검진개설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자 2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8차 보험부 회의 개최를 진행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2025년 제8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포상대상자 명단 인준 요청의 건,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간소화의 건이 진행됐다.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기타토의 후 제512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대한공중보건검사학회, 지역통합돌봄시대 공직 임상병리사의 역할 모색

대한공중보건검사학회(학회장 김민호)가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돌봄에서 공직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학회는 10월 24일(금)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차 대한공중보건검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돌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션을 진행했다.



첫 순서로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돌봄통합지원법 현황과 공직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대한공중보건검사학회 회원들에게 "보건소가 지역사회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틀림이 없다"며 "보건소나 공직에 있는 임상병리사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을 하게 되는 가능성은 다른 임상병리사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방문서비스의 구성 중 방문의료에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장진단검사(POCT)의 현장성과 즉시성은 방문진료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은 환자 수가 많고 향후 주기적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주야간보호센터 역시 현재는 복지 위주지만 앞으로 의료가 보강되면 방문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과 서재룡 시립병원기능강화팀장이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과 업무 영역의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서 팀장은 'Aging in Place'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갈 방향성이며 여기에 의료기사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이고 그 직능이 앞으로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이어 고령화 인구 비율의 증가와 결핵 인구 감소 등 빠르게 변화하는 공공의료 속 공직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인력 재배치 제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데이터를 다루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예시로 들며 이러한 신규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협회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의료서비스가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가 병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기사법상 임상병리사의 방문검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회가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통합돌봄체계 내 임상병리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이번 개정안은 여야 34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역사적인 법안으로, 통과 시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이번에는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하다"며 "협회는 법 통과 이후를 대비해 표준지침 및 교육체계, 수가와 보상체계, 품질관리 매뉴얼 등 실무 기반 마련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간호법 시행규칙 및 진료지원업무 고시(안)에서 간호사의 검사 수행이 명확히 제한된 만큼, 임상병리사가 통합돌봄체계 내 검사 전문인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공직 현장에서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학회장은 세션 마무리 발언으로 "공중보건 임상병리사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돌봄체계로의 진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주신다면 협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 동정

10월 02일 제1차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 회의

10월 10일 제2차 전문임상병리사 시험 준비 회의

10월 16일 제512차 상임이사회

10월 18일 대전광역시 중소병의원 간담회

전문임상병리사 인정시험 문항 출제

10월 19일 전문임상병리사 인정시험(미생물·품질관리·화학·수혈)

10월 22일 회계법인 간담회

국제부 회의

10월 23일 국가시험원 회의

폐기능 장비업체 간담회

10월 25일 제8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인정시험 문항 출제

10월 26일 전문임상병리사 인정시험(육안·조직·세포·유전)

10월 28일 제7차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회의

10월 31일 임평원 원단장 회의

제2차 기자간담회

전산시스템 고도화 회의

“생리검사 업권 확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장 인터뷰

초음파, 폐기능검사, 심전도 등 생리학적 검사는 질환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임상병리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을 예고하면서, 생리학적 검사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돼 제도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와 함께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를 구성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김상훈 학회장을 만나 생리검사 분야의 현황과 향후 방향,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 발을 들이신 계기를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2024년 3월부터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제13대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1997년 당시 강북삼성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인턴사원으로 입사 후 원내 신경과가 신설되면서 근전도검사 직원 공채에 지원하여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간이 부족해 인사팀 서류보관실에서 검사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신경검사실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금까지 생리검사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Q. 최근 협회·교수협의회와 함께 ‘생리분야 업권 확대 준비 TF’를 구성하셨습니다. 출범 배경과 주요 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관련 민간자격증을 가진 단체들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담당하는 생리기능검사 분야가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 검사라고 인식되어 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심리사,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간호사, 안과검사는 안경사, 이비인후과검사는 청각사·청능사가 우리의 업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늦은 감은 있지만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의견을 모아 학회는 협회(이광우 협회장님), 교수협의회(이동섭 회장님)와 함께 뜻을 모아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귀성인파로 붐비던 지난 추석 연휴 전날 늦은 시간에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절실했습니다. 당면한 사안은 간호법 시행령 공포 후 생리초음파의 수호 및 영역확대, 국가건강검진 56세, 66세 폐기능검사 시행에 따른 협회와 학회의 공조 방안이 초대 안건입니다.

Q. 특히 초음파 분야 확대 논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업무 범위 확장 방향이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준비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초음파검사는 오래전부터 임상병리사들이 수행하던 검사입니다. 심장·뇌혈류·혈관초음파 등이 대표적이며 1990년대 생리학적 검사 교과과정에는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 태아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음파검사에 대해 재해석하고 현장 검사자 현황 파악, 임상병리사의 관련 논문 분석, 대학 교과과정 포함,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고 정리가 되는 대로 협회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혈관초음파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안과 검사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발송한 상태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Q. 최근에는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학회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A.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은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로 폐지와 맞물려 임상병리사의 일자리가 3,000개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회는 이미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 폐기능(폐활량)검사 종사자 교육’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중 예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전원 임상병리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리분야 업권확대 준비 TF팀’에서 계획이 논의되었고, 2026년 1월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시행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자 교육을 위한 스탠드 메뉴얼과 빠른 시간 내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했고, 현재 가이드라인, 동영상 교육, 현장 교육 일정표, 강사 섭외 등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실무자 교육에 필요한 기기 업체와 회의를 가졌고 적극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한내과의사회와도 회의 후 폐기능검사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복지부의 고시 예고로 생리학적 검사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로 명확해졌습니다. 학회에서는 이번 조치의 의미와 향후 학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노력해 주신 이광우 협회장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리기능 검사는 여러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생리기능검사 분야에서는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부정맥의 웨어러블과 AI 시장에 판독 등으로 큰 시장이 열릴 것이고, 심장초음파, 혈관초음파 영역에서도 일부 간호사가 수행하는 병원은 임상병리사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과정에 학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업권 확립과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가질 생각입니다.

Q. 이번 TF 활동이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요?

A. 협회가 추진하는 돌봄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능검사, 안저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의 검사를 현장에서 의사의 동행 없이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검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생리검사 분야의 미래, 그리고 학회의 방향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AI의 발전으로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검사 현장에서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반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지 하나로 혈압·심전도·수면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시대지만, 생리학적 검사 분야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내용에서 보듯 AI로 완전히 대체되는 세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AI는 생리학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동반자의 모습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병리사는 그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역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Q. 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A. ‘기타 생리검사’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안과·이비인후과 검사를 새롭게 정립한 일입니다.

기타 생리학적 검사 부분의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는 의견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제13대 임상생리검사학회장으로 시작하면서 특수감각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학회 임원이 아닌 현장의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덕망 높은 대학교수님을 학술고문으로 영입하여 의견을 듣고 기타생리를 ‘특수감각계’라고 하는 학술팀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대학, 학회 회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 회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직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 직업을 볼 땐 장점만 보고 임상병리사를 볼 땐 단점을 부각해 비교합니다. 하지만 저희 임상병리사는 장점이 많은 직업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제가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병리사의 미래와 후배들을 위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자”입니다. 우리 임상병리사 스스로 자존감이 없다면 사회적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도 없을 것이구요. 더욱 임상병리사를 하겠다고 하는 훌륭한 능력의 후배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것이 자명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제도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학회는 협회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험부 -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누584마 일반면역검사-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1) $PSI \geq 3$ 또는 CURB- 65 ≥ 2
 -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leq 90\%$: 3점
 -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2.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 다종그룹1- (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4- 102호(2024.6.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내용 반영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변경 전 급여기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 293호(2024.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1) ~ 2) <생략>
 - 3) 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 다종그룹1- (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흥미로운 보험정보는 다음편에도 계속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seegenemedical.com/>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신사옥

「씨젠메디칼타워」
 Grand Ope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88
 씨젠메디칼타워

“창립 35주년, 「씨젠메디칼타워」에서 새로운 미래를 엿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지하 6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연면적 약 17,000평 규모의 「씨젠메디칼타워」를 준공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검사 품질의 완벽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요 특징점

01
최첨단
스마트 빌딩 관리
체계(IBS)

02
국내 최대 수준
검사실 자동화
(TLA)

03
분자진단
PCR 검사 전과정
자동화 플랫폼

04
융합형 첨단 연구
환경(분자진단 · 면역
· 질량분석 · AI)

05
해외 진출
의료 네트워크 확대
(오픈헬스케어주)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벡스코서 KIMES BUSAN 2025 참가 및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9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KIMES BUSAN 2025에 참가했다.

27일(토)에는 벡스코 101호~104호에서 2025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마약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역할

(송호림) ▲검사실 위험도 관리와 직업윤리(이재숙) ▲검진기관 평가 대비 중소병원 검사실 운영 및 실무자료(안영) ▲사례로 알아보는 정도관리(이승모) 등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부산시회 집행부는 10월 18일(토)부터 19일(일) 양일간 광안리 인근에서 집행부 워크숍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원들을 위한 ‘임병 무비데이’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회원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임병 무비데이(Movie day)’를 10월 23일(목) 메가박스 프리미엄 만경관에서 개최했다. 약 120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바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구시회 회원들은 콤보 세트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참석한 한 회원은 “현장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힐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회 관계자는 “회원 간 교류와 재충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병리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협회 소속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문화 행사는 물론, 학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복합형 회원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도 제4회 심장초음파 기초과정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는 9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서명대학교에서 제4회 심장초음파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모든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서정훈 회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육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신 모든 교육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언제나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여 임상병리사가 초음파검사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회 무등산권 GEO마라톤대회 행사 의료봉사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10월 12일(일)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화순군, 광주MBC, 전남대학교에서 주최한 제4회 무등산권 GEO마라톤대회에서 트로포닌(Troponin)검사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광주시회는 금호화순스파리조트 현장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을 위해 심혈관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트로포닌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시회는 총 120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했다.



서정훈 회장은 “처음 실시한 의료봉사 행사였지만 새벽 6시부터 함께 준비해 준 임원들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검사에 관심을 보여 기쁘고 앞으로도 마라톤 등 지역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2차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는 9월 24일(수) 대전 문화동에 위치한 CGV 대전에서 2025년도 제2차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영화 관람 행사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문화의 날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준비된 다과와 함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를 관람했다. 특히 개봉 당일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됐다.

대전시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10월 18일(토) 대전보건대학교 8동 4층 대강당에서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15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보수교육은 권지연 회장과 이광우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POCT 혈당 측정기 원리 및 정도관리 : 노태욱(GB Lifecare) ▲중소병의원 검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전략 : 이금희(둔산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의원) ▲임상화학분야에서의 정도관리 이해와 실제 : 이성빈(Quidel Ortho) ▲면역/생화학 검사의 이해 : 윤지승(지멘스) ▲건강보험수가의 이해 : 송호림(경인지지방병무청) ▲미래를 여는 직무 확장(스포츠도핑검사와 임상병리사) : 김민주(구미강남병원) ▲통합돌봄의 정책 방향 : 허윤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8가지 주제의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4층 강의실에서는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위한 교육과 중앙회 이광우 협회장,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참석한 간담회가 동시에 열렸다. 또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신 장비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대전시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한 교육 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수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다빈봉사단,
제24회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 참여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 다빈봉사단이 9월 27일(토)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24회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알렸다.

올해로 2년 연속 참가한 다빈봉사단은 철저한 준비 속에 혈당·혈액형 검사와 함께 폐기능검사 체험존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폐기능검사 체험은 준비된 일회용 검사 도구가 행사 종료 한 시간 전 모두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약 150여 명의 시민이 부스를 방문해 직접 검사를 체험하며 임상병리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내 대학생 다빈 회원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시민들과 함께 건강의 중요성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광철 회장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폐기능검사의 시행 주체가 임상병리사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런 행사가 향후 지역 돌봄 체계 속에서 임상병리사가 현장검사(POCT)를 수행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가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확한 진단과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은 임상병리사”라는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심포지엄이 진행됐으며, 경북도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조대현 회장은 협회 정책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해 협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고, 실무연수강좌 좌장으로서 강연 진행을 맡아 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경북도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공식 일정 이후에는 미팅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며 학술 교류뿐 아니라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북도회는 이번 학술대회 참여를 계기로 회원 역량 강화와 학술 교류 확대에 더욱 힘쓰고,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2025년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박준모)는 10월 25일(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2025년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준모 학회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학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임상병리사의 권위와 지위 향상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했으며 ▲CLSI 가이드라인에 따른 혈중 갑상샘글로불린 측정 시약의 정량한계 검증에 관한 연구(국립암센터 안재석) ▲냉장 하룻밤 반응 후 세척 전 실온 노출 시간에 따른 Calcitonin, CA 72-4, Cyfra 21-1의 안정성과 측정 불확도 평가(삼성서울병원 오윤정) ▲SiPM 감마카운터의 사용 사례 보고(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정인) ▲제1형 당뇨병 조기진단에서 Tyrosine Phosphatase IA2 Autoantibody와 Glutamic Acid Decarboxylase Autoantibody 검사의 유용성(서울대학교병원 하동혁)이 발표됐다.

특강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신용환 전임회장이 ‘KS Q ISO 15189:2022(제4판) 표준 개정에 따른 공인 메디컬시험기관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우수학술구연상은 삼성서울병원 오윤정 회원의 연구가 선정됐으며 추계학술대회는 활발한 학술 교류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2025년 제1회 유전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 개최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학회장 이건동)가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2025년 제1회 유전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학회의 숙원 사업으로, 유전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수강생 45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병원 및 대학의 교수진, 검사실 현장의 전문가 등 총 18명의 강사진으로 이뤄졌으며, 유전검사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폭넓은 지식을 나눴다.

교육 과정은 ▲유전검사의 개요(서울아산병원 임성은) ▲Nucleic Acid Chemistry(혜전대학교 이동섭 교수) ▲Basic Molecular Theory(강릉아산병원 강주원) ▲Quality Assurance & Safety(삼성서울병원 이상규) ▲Signaling Pathways in Cancer Therapy(서울아산병원 임정식) ▲Contamination(세브란스병원 박원영) ▲Genetic disorder(세브란스병원 원동주 교수) ▲Oncology(국립암센터 박석연 교수) ▲Hematology(세브란스병원 신새암 교수) ▲Quality Assurance&Safety(이원의료재단 김경희) ▲Nucleic Acid Amplification(국립암센터 윤정희) ▲Infectious Disease(삼성서울병원 김태열 교수) ▲Genetics(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훈석 교수) ▲NGS의 이해 1(삼성서울병원 박옥재) ▲NGS의 이해 2(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지숙 교수) ▲Bioinformatics(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종호 교수) ▲세포유전검사 1(세브란스병원 강지연) ▲세포유전검사 2(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재웅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유전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안미숙 위원장은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황삼노 간사 등 준비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민호 회원, 국제 학술지
BMC Neurology 편집위원으로 위촉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임상병리사이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한민호 회원이 최근 국제 학술지 BMC Neurology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으로 위촉됐다.

BMC Neurology는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 신경면역학 등 신경과학 전반의 최신 연구를 다루는 저널로, 국제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지닌 학술지다.

한민호 회원은 이번 위촉을 통해 향후 학술지의 논문 심사와 연구 방향 제시 등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식지 'HEPa'를 소개합니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식지 HEPa는 2024년 9월 창간되어 연 2회 발행됩니다.

학회 소식지에는 교육 일정, 정책 안내, 회원 인터뷰 외에도 병리 진단 트렌드, 검사실 운영 노하우, 연구 동향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HEPa 2호 바로가기

Vol.02 | 2025.04

HEPa
H&E stain and Pap stain

KOHC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Histology & Cytology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Vol. **02**
2025.04

HEPa : H&E stain and Pap stain의 뜻을 담았습니다

2025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예정



주제 신장을 중심으로한 비뇨기계
강사 현미경 강의 : 김현성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조직병리 : 최은정(삼성서울병원)
세포병리 : 김상일(인천성모병원)
육안병리 : 김경철(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일시 2025년 5월 24일(토) 13:00~18:00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 세포병리사회 결렬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육안전문임상병리사 심화교육 성료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조직전문임상병리사 2024년 보수교육 성료



2024년 추계 학술대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하다



NGS

국립암센터 병리과의 NGS 검사를 알아보다



현미경 심화교육

2025년 심화교육-현미경 조직검경



발행일 : 2025년 4월 | 발행인 : 소전기 | 발행처 :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메일 : heyheyhey78@naver.com

편집위원 : 김연희 김종석 김철 심미나 안종범 이권우 이신일 이종근 송현범 주준하 지호룡 최병일 | 디자인 : 이날 | 인쇄 : 예림파인퍼 02.2274.2588

[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FAX.031.961.7939 www.kshc.or.kr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도전과 발자취

한국 임상병리사에서 미국에서 실험실 디렉터가 되기까지 - 미국 캘리포니아 Clinical Laboratory Bioanalyst 면허와 HCLD/CC(ABB) 자격 취득의 여정 -

유경래 회원

■ 임상병리사의 꿈이 국경을 넘어설 때

저는 한국에서 임상병리사로 시작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Irvine의 분자진단 전문 연구실(MDxHealth)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캘리포니아주 보건국(CDPH)의 Bioanalyst(Clinical laboratory Director) 면허를 취득했고, 이미 취득했던 American Board of Bioanalysis(ABB)의 HCLD(High-Complexity Laboratory Director) 및 Clinical Consultant(CC) 자격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 수년간의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

CDPH Bioanalyst 면허와 ABB HCLD 시험은 단순한 지식 검증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경력, 교육, 연구 성과,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실제적 판단 능력까지 평가받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면허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주정부 인증 중 하나로, 면허 취득까지 3년 3개월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자격을 얻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하였고, 두 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지만 미국인 패널들 앞에서 2시간 동안 오럴 보드 시험을 치른 끝에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 동안 저를 지탱한 것은 ‘임상병리사에 대한 저의 자부심’과 ‘환자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새로운 장비, 새로운 분석법, 규제 변화 속에서도 검사결과 하나하나가 환자 치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CLS(임상병리사)들도 업무를 내지 못하는 lab director 자격증에 이어서 가장 까다롭다는 캘리포니아 면허까지 취득한 최초의 대한임상병리사 출신의 캘리포니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소재 임상분자실험실과 임상수탁검사실 두 곳을 10월부터 디렉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로만 들던 CLIA 번호가 제 이름으로 발급이 되어 검사실이 개설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CLIA인증 검사실의 최고 책임자 및 감독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한국 임상병리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많은 한국의 임상병리사들이 탁월한 분석 능력과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량이 결코 국경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

어라는 언어의 벽, 미국의 복잡한 규정, 그리고 낯선 환경 이 모든 것은 단지 ‘절차’일 뿐, 우리의 전문성 자체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 임상병리학은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

그 기반 위에 스스로의 열정과 끈기를 더한다면, 누구나 세계적인 무대에서 실험실을 이끌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비전

이제 저는 단순히 ‘한 명의 면허 소지자’가 아니라, 다른 임상병리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과 세계 검사실 리더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과정,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검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 안전과 진단 품질의 최후 보루이자, 과학적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저를 움직일 힘입니다.



■ 마치며

‘CDPH, ABB, CLIA’ 그 이름들은 어렵고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 앞에는 항상 ‘임상병리사’로서의 기본기가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경험, 정확함에 대한 집념, 그리고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가 되고자 했던 초심, 그것은 미국에서도 통하는 가장 강력한 자격입니다.

비록 디렉터로 체급은 전환되었지만 나는 영원한 임상병리사요, 나의 자랑스러운 바로 그 임상병리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임상병리사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Kyong Nae Yu
Clinical Laboratory Bioanalyst
(CA CDPH), HCLD/CC (ABB), CLS (CDPH), MLS/MB(ASCP)
Director of Apex Clinical Laboratory, Dallas, TX, U.S.A
Director of Pathgen Laboratory, LLC Carrollton, TX, U.S.A
Lead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MDxHealth, Irvine, CA, U.S.A

씨젠의료재단, 창립 35주년 맞아 신사옥 이전 ...첨단 진단·연구 인프라로 미래 의료 선도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신사옥 ‘씨젠메디칼타워’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신사옥 이전은 씨젠의료재단이 지난 35년간 축적해 온 진단검사 역량과 연구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인프라 구축의 결실이다.

씨젠메디칼타워는 연면적 1만7천평, 지하 6층·지상 19층 규모의 초대형 연구·의료 복합시설로 건립됐다. 건물은 백색 커튼월과 수직 루버, 투명 유리 마감을 적용해 세련미와 개방감을 살렸으며, 외벽 디자인에는 재단의 영문명인 ‘See Gene(유전자를 바라보다)’의 의미를 형상화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365일 빛을 밝히는 기관’이라는 상징성을 담았다.

새 사옥에는 분자진단, 면역, 질량분석, AI 등 4개 전문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첨단 진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화 검사정보시스템 ‘씨엘아이에스(SeeLIS)’와 AI 기반 병리 진단 품질관리 시스템 ‘SeeDP’를 새롭게 가동했다. 이를 통해 씨젠의료재단은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분자진단 PCR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한 플랫폼을 도입했으며, 약 3년간 자체 개발한 차세대 검사정보시스템 ‘씨엘아이에스(SeeLIS)’와 AI 기반 병리 진단 품질관리 시스템 ‘SeeDP’를 새롭게 가동했다. 이를 통해 씨젠의료재단은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층별로는 5층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6·7층에 진단시약 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SG바이오사이언스가 입주했으며, 8~13층에는 자동화 검사센터, 진단검사센터, 분자진단검사센터, 생명환경검사센터, 연구소 및 R&D 사업부문이 자리하고 있다. 15층에는 병리센터와 AI연구소, 16층에는 해외 진단사업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는 오픈헬스케어(주)가 입주하여, 씨젠의료재단의 글로벌 의료 서비스 확장을 이끌고 있다.

신사옥의 상징 공간인 18층 씨젠아트홀은 국제 세미나, 교육, 연회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전면 개방형 설계를 통해 서울 동부권의 조망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또한 790인치 초대형 8K 미디어월을 설치한 로비와 전문 영상·방송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학술 세미나,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천종기 이사장은 “씨젠메디칼타워는 인류 건강 증진과 미래 의학 발전을 향한 씨젠의료재단의 비전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주요 거점 검사센터와 연계해 단일 진단검사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질병검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씨젠의료재단은 신사옥 이전과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씨젠메디칼타워 씨젠아트홀에서 ‘2025년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열고, 전 부서에서 제안된 25개 품질 개선 사례 중 7개 우수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검사, 행정, 경영, 고객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수행된 혁신활동을 공유하며 품질 중심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천 이사장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재단의 품질경영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모든 임직원이 더 높은 품질 기준을 세우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10월 24일에는 씨젠메디칼타워 18층 씨젠아트홀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근속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천종기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5년간 이뤄낸 성과는 임직원 모두의 헌신 덕분이며, 부서 간 협력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씨젠의료재단은 1989년 설립 이래 분자진단, 미생물, 임상화학, 병리, 면역, 수혈, 유전, 생명환경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진단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단 정확도 향상과 연구개발을 통해 공공보건과 임상 현장의 검사 품질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11월 21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배송 주소

♥ 제513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AI시대 검사전문가 임상병리사의 역할 'POCT(현장검사) 돌봄통합 고도화' 국회토론회 성료

■ **곽민정 회원 / 전화번호 : 21846**

여러 직역들 중에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참여 의사가 제일 높다는 기사를 통해 임상병리사들의 역할 확대에 자긍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 방문 채혈, 방문 복지 등 영역의 하나로 임상병리사가 소중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구재관 사무관이 언급한 “임상병리사의 방문 검사에 대한 역할은 통합지원단의 정책방향과 크게 일치한다”는 기사는 바쁜 일상에 단비와 같았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전문적인 임상병리사 역할 다양성을 응원합니다.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인상 깊은 기사였습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홍보 강화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배웠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10월 언론보도

PRESS



의학신문

2025.10.01.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고시 '긍정' 평가

의학신문

2025.10.16.
임상병리사협회 광주시회,
무등산권 GEO마라톤대회 의료봉사

세이프탁임즈

2025.10.01.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고시 환영

세이프탁임즈

2025.10.22.
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 국민건강 위한 시대적 법안” 통과 촉구

병원신문

2025.10.0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고시 행정예고
“간호법 취지 부합”

의학신문

2025.10.22.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건강·검사안전 이바지할 것”

매경헬스

2025.10.02.
임상병리사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에 의료기사 업무 배제, 환영”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2025.10.22.
“의료기사 법 개정안은 국민건강·검사안전에 기여할 것”

세이프탁임즈

2025.10.15.
임상병리사협회 광주시회, 무등산권 GEO마라톤서
트로포닌 검사 의료봉사

MEDWORLD

2025.10.23.
의료기사단체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분위기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부산시회

울산시회

광주시회

경기도회

인천시회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 해주세요!

강원도회

전북도회

경북도회

충남도회

경남도회

서울시회

강원도회

대구시회

충북도회

광주시회

경남도회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친구추가 해주세요!

경기도회